

도시형한옥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현대적 활용방안 연구**

- 내부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Modern for Sustainable Conservation of Urban Traditional House

- Focus on the Change the Interior Space -

Author 류인혜 Ryu, In-Hye / 정희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과 석사과정
김개천 Kim, Kai-Chun / 정희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과 부교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reevaluate urban traditional houses and to propose direc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urban traditional houses in a way of maintaining historical landscape rather than the value of urban traditional houses as components in expanded urban structure. For these purposes, we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urban traditional houses by representative cases and analyzing them exhaustively, and suggested problems i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raditional houses and solution for them. The current conservation system for Urban Traditional House in the Bukchon area is applied to non-residential Urban Traditional Hous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owner's consciousness of conservation because there is no support system for non-residential Urban Traditional House. Accordingly, there should be standardized criteria to maintain the landscape of the Bukchon area in terms of beauty formed by the elevation of Urban Traditional House and the continuity of roofs while accommodating various functions. As in total conservation or partial conservation, the interior remodeling of individual houses may be allowed but the three-dimensional external appearance composed of the outer walls, fences and roofs of Korean-style houses should be repaired and improved in a way of maintaining the image. In order to utilize Urban Traditional House in the Bukchon area, plans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its location, historicity and tradition. We may expect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cultural facilitie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as alternative cultural spaces. Such use of individual Urban Traditional House should be extended by linearly and areally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Keywords 지속가능한, 보전, 도시형 한옥, 현대화, 활용
Sustainable, Conservation, Urban Traditional House, Modernization, Utiliz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옥은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주택이지만 196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의 것이 우월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도시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되어 갔다.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동안 단절되어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소외되었고, 이 과정에서 역사의

흔적들이 사라져 도시의 정체성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도시형한옥¹⁾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토지가격의 상승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의 경제성 논리에 의해 대다수의 도시형한옥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철거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도시형한옥들은 한옥 고유의 원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전하여 중요한 자원으로 그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생활은 과거의 삶의 양식과는 달리 다양한 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kck@kookmin.ac.kr

** 이 논문은 2012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논문이며, 또한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5001)

1) 도시형한옥 : 송인호,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0, pp.19-21에서 '1930년을 전후로 한 시기로부터 1960년경에 이르기까지 지어진 형식으로, 서울의 도심부 및 도심주변부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일련의 중소규모의 한옥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현대의 생활방식 및 환경을 충족시키면서도 고유한 역사성을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보전(Sustainable Conservation)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의 전통적인 한옥을 과거의 유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생활방식으로 인한 내·외부 공간의 변화를 수용하여 현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수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시켜야 한다.

한옥은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개별 한옥은 군집된 한옥지역을 구성하는 하나의 개체이므로 역사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개체로서 도시형한옥이 지닌 가치를 살펴보고 전체적인 경관을 유지하면서 시대의 자연 속에 새로운 모습의 공동체를 담아내기 위해 한옥의 보전²⁾ 및 활용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흐름을 국외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서 부족한 점을 알아보고, 현대적 활용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 도시형한옥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대 생활에 대응하여 변이된 2000년대 이후 도심부 및 도심주변부 한옥의 전반적인 내·외부적 변화를 살펴보고, 외부경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보수 기준정립이 미흡하여 무분별한 내부공간의 다양화가 생기는 가운데에서도 한옥의 원형을 최대한 살려 현대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는 단순히 전통의 보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써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첫째, 역사적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개별문화재만을 보호하는 점적인 보전에서 면적인 보전으로 범위가 확대된 역사적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고, 제도와 규칙을 통해 국내·외의 보전 및 활용방식을 알아본다.

둘째, 도시형한옥을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파악하고 이의 지속가능한 보전방향과 유형을 간단히 고찰하였다.

셋째, 200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보전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수립한 대표적인 도심지 한옥인 북촌의 내부공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도시형한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종합한 결과를 지속가능한 보전의 분석틀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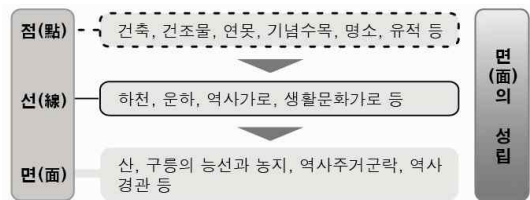
넷째, 2001년 북촌 가꾸기 사업이후 외부의 가로경관은 큰 개선을 보여 왔으나, 상대적으로 내부공간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외관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한옥 본연의미를 살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앞선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여 종합한다.

2. 역사적 문화유산의 보존 방향

2.1. '면의 보전' 개념으로의 발전 단계

1960년대는 문화재보호법 제정 등 역사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로 단일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보호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예외적으로 경주에서 한옥보존지구로 지정(1970)이 되었으나 본격적인 역사보존지구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1970년대는 <그림 1>³⁾과 같이 점적인 보전으로부터 면적인 보전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전환을 꾀하는 모색의 시기였으나, 문화재보존 행정 내부에서 보상 문제 및 가옥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면적인 지정은 곤란하며, 전통건축만을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우리나라 전통마을 보전은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림 1> 점·선·면적 보전자원의 종류

그러나 1980년대 초기에 들어서면서, 개별건축물의 점적인 보전에서 취락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된다. 또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마을 내 전통건축에 대한 중요민속자료 지정이 이루어진 지 약 1년이 지난 후에 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성읍민속마을 전체가 지방민속자료로 지정되는데, 그 주변의 자연환경 등은 지방문화재인 지방민속자료로 지정되는 이중적인 구조의 보전이 성립되었다.⁴⁾ 그러나 마을단위를 보존의 대상으로 지정한 '면의 보전'의 시초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표 1> 전통마을의 지방민속자료 지정(1980)

지정명칭	지정번호	면적(㎡)	가옥 수	지정일
안동하회마을	경상북도 지방민속자료 제 23호	353,631	125	1980.12.30
월성양동마을	경상북도 지방민속자료 제 24호	565,478	151	1980.12.30
성읍민속마을	제주도 지방민속자료 제 5호	103,330	97	1980. 5.17

2) 보존(保存;preservation)과 보전(保全;conservation) : 보전은 역사·문화적 진정성과 현재의 현실적 요구의 타협을 의미한다.

보존(保存;preservation)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보전(保全;conservation)	원형의 근간을 유지하며 새로운 조건에 맞게 다소의 변경을 수용하며 유연하게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 관리 + 활용

3) 최섯별·박소현, 서울 서촌(西村) 문화지구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2009) 논문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4) 최선주, 우리나라 역사지구 보존의 과제 : 문화재보호정책상 「면의 보전」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1996, pp.116~117

우리나라의 전통마을 보존은 낙안읍성의 사적 지정을 계기로 국가에 의한 마을 전체의 보존으로 전환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면의 보존이 지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것을 국가가 전통마을이 지닌 국가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사적으로 지정된 것이다. 당시 문화재 위원회(1982)에서는 <표 2>와 같이 낙안읍성의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가옥 9동을 국가가 매입하여 이전한 뒤 보존하는 방안과 지정가옥만을 보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축 및 개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개개의 건축물이나 유구(遺構)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총체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⁵⁾ 결국 읍성의 건물 배치, 축, 도로구성 등과 같은 공간의 기본적 골격이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면서 사적으로 지정되게 된다. 낙안읍성의 사적 지정은 전통마을을 국가가 지정하고 보존할 필요성과 전통마을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표 2> 전통마을의 중요민속자료 지정

지정명칭	지정번호	면적(㎡)	소재지	지정일
낙안읍성	사적 제 302호	135,359	전남 승주	1983.6.14
안동하회마을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5,288,228	경북 안동	1984.1.10
성음민속마을	중요민속자료 제188호	790,747	제주 남제주	1984.6.7
월성양동마을	중요민속자료 제189호	969,430	경북 월성	1984.12.24

2.2. 국내·외 역사적 문화유산의 보전방식 및 활용

역사적 문화유산은 그 자체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물질 요소(문화재, 도시 형태와 패턴, 건축물, 구조물, 수목, 자연물 등)와 비물질 요소(집합경관, 장소적 이미지, 분위기, 전통산업과 문화 활동 등)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하나의 보존지구⁶⁾를 형성하게 된다. 본 항에서는 문화재의 역사적 경관을 보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국내·외의 제도와 규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 보전방식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유산의 보존은 문화재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역사적 문화유산의 활용보다는 원형보존 측면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계승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의 가치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향유하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해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전을 전제로 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변동과 생활양식의 변화, 기술혁신, 경제의 효율화 등으로 사라

5) 최선주, 우리나라 역사지구 보존의 과제 : 문화재보호정책상 「면의 보존」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1996, p.119
 6) 보존지구 : '건축물 혹은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지구로서 그 특징과 경관을 보존하거나 향상시킴이 바람직한 지구'로 규정되고 있다.

질 위기에 처한 역사적 문화유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호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의 신고와 제도, 권고를 기본으로 한 등록문화재⁷⁾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표 3>⁸⁾과 같이 지정문화재 제도의 보완제도로써 문화재적인 가치를 재발견하여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건축물을 등록시키고, 지정제도보다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자의 자주적인 보호에 기대하는 제도이다.

<표 3> 우리나라 문화재 등록기준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기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상 지난것. (50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포함가능)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건조물의 경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집단 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전통적인 전원생활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2) 국외(미국·일본) 보전방식

미국은 국가의 문화재 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차원에서 역사지구를 보존하고 있다.



<그림 2>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미국 오하이오 주)

미국의 문화재 보전은 순수한 의미의 원형보존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시민들의 삶과 괴리된 보존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공간으로 기능하여 문화재가 지역주민의 삶으로 스며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⁹⁾ 이러한 활용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오하이오 주의 Akron시 다운타운에 있는 1930년대에 지어진 곡물창고가 1980년에 과감하게 개조되어 현재에는 고급 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7) 등록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중점으로 하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위해 2001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 지정문화재는 엄격한 원형유지 원칙에 의해 문화재 자체는 물론 문화재 주변지역까지도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강하게 미치는 것에 반해 등록문화재는 건물 내·외부 활용이 시대적으로 자유롭고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다.
 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42조I(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문화관광부령 제168호(2007년 8월 29일 공포)
 9) 김도연, 복촌 비주거용 한옥의 역사적 장소성을 위한 보전 및 활용 방향, 경희대 박사논문, 2008, p.37

수 있다. 이처럼 방치된 창고가 웅장한 호텔이 되고, 철도역사가 쇼펍센터가 되고, 낡은 우체국이 호텔이 되는 등 역사적 건물이 현대인의 요구에 맞게 다각도로 발전하여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재 등록제도는 개별적인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 집합체를 보존지구¹⁰⁾로 형성함으로써 점적인 보존과 면적인 보존을 병행하고 있다. 과거 동결적 보존에서 벗어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활용하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등록문화재의 우대조치는 전통적 건축물들의 집합인 지구단위와 함께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소유자의 의도에 의해 점포나 레스토랑, 사무실, 전시시설 등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있는 형태의 문화재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죽은 건물로 방치하게 되는 건축물 내부의 기능·용도 변경을 통해 장기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버려진 공간을 오히려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3. 문화적 가치로서의 역사보존지구

우리는 과거의 것을 배제하고 새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 공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¹¹⁾ 그러기 위해서 역사보존지구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파악하여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조화를 증시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 전통건축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도시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도시조직이 변함에 새로운 주거형식들이 생겨났다. 도시는 변화 그 자체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역사·문화적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가진 역사보존지구에 대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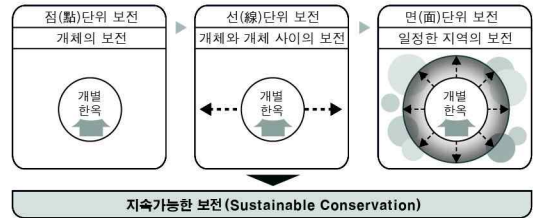
3. 도시형 한옥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

3.1. 지속가능한 보전의 개념

우리나라 초기에는 중요건축물을 하나의 개체로서 보존하는 점(點)적인 방법을 취하여 문화재로 인정한 한옥만을 보존하였고,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한옥들은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점점 사라져가거나 무분별하게 개조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문화재가 위치하는 입지까지 보전개념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통역사마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보전(Sustainable Conservation)¹²⁾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보전이란 환경과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며, 미래세대의 권리이다¹³⁾. 즉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환경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미래세대에도 그러한 삶을 물려줘야 한다.



<그림 3> 보전개념의 발전 단계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역사적 흔적들은 사회변화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초기의 형태가 변화되어 나타난다. 갑작스런 변화는 역사적 흔적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보전이 아니라 역사의 단절이 되고 만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형태적 측면 뿐 아니라 활용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가로경관의 통일성 및 고도제한 등의 역사적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고려하여 한옥공간을 새로이 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은 소유자의 만족을 이끌어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세우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새로운 보존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기존 한옥의 보전은 건축물 자체의 문화재적 가치에 의해서 원형을 보존하였고,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건축물은 철거 후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는 개발의 과정을 거쳐 지역적 특수성과 연속성이 사라지게 되었다.¹⁴⁾ 이처럼 개별한옥은 소유자의 만족을 이끌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주변에서 아무 제약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보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옥밀집지역에서의 한옥보전은 개별한옥의 보존을 통해 지역전체의 역사성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와 활용상의 의미가 중요하다.

<표 4> 한옥의 보전방안

항목	내용	비고
형태(形態)	한옥의 물리적 차원	형태 및 용도유지
↑ ↓		
활용(活用)	현대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활용적 차원	용도전환 가능

산의 해' 기념 심포지움에서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10) 보존지구는 개발과 보전의 갈등관계 속에서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집단적인 규제와 엄격한 제도 하에서 역사건축물 및 역사경관을 유지 보전하고자하는 지역을 형성한 것이다.

11) 한국의 도시경관-우리 도시의 모습, 그 변천·이론·전망, 열화당, 2004, pp.43~44

1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ICOMOS 한국위원회는 '2002년 UN문화유

13) 방재성·양병이, 도시경관계획을 위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 제37권 제2호 통권 133호, 2009.6, p.10

14) 김도연, 북촌 비주거용 한옥의 역사적 장소성을 위한 보전 및 활용 방향, 경희대 박사논문, 2008, p.144

3.2. 한옥 내부공간의 보전 방향

활용적 측면에서 개·보수가 이루어진 한옥들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디자인 되어야 한다. 즉 일관성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건물의 외관은 내부기능을 덮는 공공의 것으로 인식하여 주변 맥락에 맞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형보존에 입각한 문화재 보전정책으로 일반 한옥의 활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공간의 증축은 제한하고 경관을 해치는 내부수선은 규제하는 방향의 명확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한옥의 외부 가로경관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기준은 거의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표 5> 한옥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기준

	특성	공공	공공/사적	사적
외관	도시조직·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인 공공영역으로 인식하고 관리와 지원이 필요	●		
마당·입면	마당은 한옥의 내부공간으로 사적영역이지만 도시조직·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외관에 영향을 끼치는 수선은 규제		●	
내부 평면	소유자의 용도에 따라 변화가능한 사적영역, 권장할만한 사례를 제시하고 공간의 기능에 따라 소유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일임(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증축은 제한)			○

●: 강한 규제 ○: 공공영역에 한해서 규제 ○: 창의적인 변화와 자율성 인정

한옥의 외관은 공공영역으로 규정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내부수선에 대한 기준은 포괄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개별 건축물 소유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한옥의 기능이 다르며, 그에 따라 공간사용방식이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을 짓기가 어렵다. 또한 실내공간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이므로 개개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보장해 줘야 한다. <그림 4, 5>와 같이 외관의 형태를 해치는 증축이나 보수작업은 삼가고 한옥의 기존 특성을 보존하면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림 4> 통일성 없는 가로경관 <그림 5> 무분별한 증축 및 보수

내부공간의 변화는 외부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외부공간의 전체적인 경관가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변화를 피하고 한옥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용도에 따라 실내공간이 변화하여 나타나다라도 한옥의 전통적인 기둥 및 목구조 방식은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부공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옥 내부의 세부적인 공간구성은 소유자의 필요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지역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 도시의 공간조직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어떠한 구조든지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언제나 그 주위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한옥의 기본구조와 기둥의 결구방식을 유지하여 한옥의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 상업공간으로 쓰일 경우 기둥과 기둥사이의 수장이 변해 과장된 장식으로 표현되어 한옥의 기본구조를 볼 수 없게 되며, 기능의 특성상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전면유리를 설치하여 외부 가로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한옥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마당을 실내화하여 사용하더라도 기본 윤곽은 유지하여 한옥의 마당에서 주는 공간감과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옥밀집지역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한옥 마당을 천정으로 막고 실내화하여 거실로 이용하거나 옥상화하여 장독이나 화분을 두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활용하고자 변형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한옥고유의 구성미가 사라지게 된다.

<표 6>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내부공간 분석틀

지속 가능한 보전	1. 도시공간조직	도시조직 및 주위 경관과의 상호 관계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조화로움
	2. 한옥 기본구조	원형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활용
	3. 마당(실내화 여부)	중정의 요소에서 얻을 수 있는 구성미

따라서 <표 6>과 같이 도시공간의 조직과 한옥고유의 기본구조, 그리고 중정을 가진 마당의 세 가지 주된 요소를 분석틀로 하여 지속가능한 관점에서의 현대적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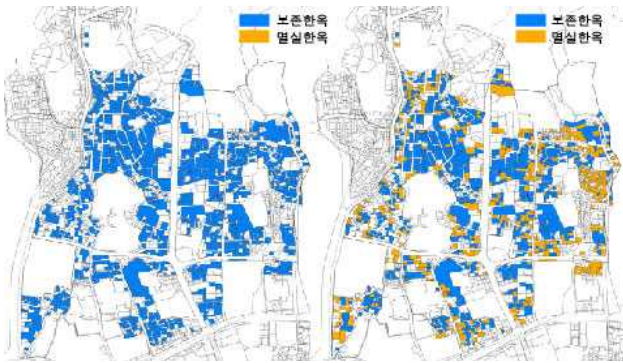
4. 도시형한옥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내부공간의 현대적 활용

한옥은 완결된 형식이 아니라 열린 형식으로서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본원형을 지키면서 현대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옥 사례의 기본적 공간구성 및 특성을 분석하고 도출된 분석틀로써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도시형한옥 내부공간의 변화 요구

근대 이후 아파트형 공동주택이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한옥은 수적으로 멸실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공간적인 가치까지 사라질 위험에 놓여있었다.¹⁵⁾ 그러나 최근에서야 이러한 한옥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고 기존 한옥의 보전과 더불어 한옥을 새롭게 해석하여 현대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5년 한옥분포(1,518동) → 2000년 한옥분포(947동)
 <그림 6> 멸실 위기의 한옥(사례 : 북촌한옥마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거문화와 양식이 달라지면서 도시형한옥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 내부공간의 확대, 공간의 질적 향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으며, 이는 곧 한옥의 물리적 변화를 일으켰다.

4.2. 한옥 내부공간의 현대적 활용 사례

2001년에 시작된 ‘북촌 가꾸기 사업’으로부터 비롯되어 최근 십년동안 건축가와 장인, 건축학자들에 의해서 한옥수선과 신축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이전의 대목수가 담당하던 영역들이 건축가의 개입이 더해짐으로써 기존한옥의 원형적 구조를 살리면서도 실의 형태적 변화를 통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능을 향상시켰다.

가회동 35번지 이씨 주택은 현대식 한옥이되 형식이 규범적이며 작은 규모지만 평면이 치밀하고 공간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ㄷ자’형 평면형식은 그대로 따르면서 기둥간격을 조정하여 대청에 면한 건넌방 자리에 현관과 계단을 끼워 넣었다.

현관을 통하여 출입 문제를 개선하고, 대청을 부엌과 연계된 온전한 가족 공간으로 보존하였다.¹⁶⁾ 그리고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대청과 안마당 아래에 서재를 구성하고, 바깥마당 아래에 차고를 구성함으로써 지상의 한옥 공간을 여유롭게 하여 한옥의 윤곽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하층의 단면을 보면 대청과 안마당의 레벨차이를 이용하여 지하실에 고장을 만들고, 꺾인 단면을 창의적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수평적 증축

<표 7> 한옥 내부공간의 현대적 활용사례1

가회동 35번지 이씨 주택(2009)			
평면 배치적 특성	평면유형	‘ㄷ’자형 한옥(ㄱ자형안채+ -자형 문간채)	
	진입방식 및 출입구 위치	남북방향 도로에서 동쪽 진입	
	마당의 향	남쪽 열림	평면도 (1F)
공간 구성	주요실 구성방법	오디오실, 차고, 거실, 안방, 마당 등	평면도 (B1F)
	매개 공간	바깥마당, 문간, 마당, 현관	
	시각적 개방성	거실전면의 창호 일부에 단열유리를 설치하여 개방	
의장 구조	가법적 공간구성	거실과 부엌을 하나로 터서 사용가능	
	기단	전통적 특성 유지	
	벽체 및 창호	풍소란, 3중 창호	
지속 가능한 보전	지붕 및 처마	겹처마	
	1.도시공간조직	전체적인 경관을 통일하여 조화됨	
	2.한옥기본구조	기둥간격 변화 외에 그대로 유지	
현대적 활용	3.마당	중정 형태 유지	
	1. 구조 : 전통 목구조 +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실 위에 전통목구조를 충실히 구현한 지상부가 올려져 있음)		
	2. 현대식 설비 : 전통창호를 이용하면서도 풍소란, 3중 창호, 단열유리 등을 적용하여 기밀성과 단열성을 높임		
3. 실내단면의 고저차 이용 : 온수난방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쓸모없어진 온돌하부 공간을 지하실로 사용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임			
활용			
	지하 공간 활용	바깥마당의 지하 차고	지하실 고창

보다는 수직적으로 다양한 단면을 적용하여 공간을 확보한다면 부족한 면적을 해결하면서 한옥의 전체적인 구성미를 살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하에 양육 공간과 지상의 한옥 공간이 짝을 이루므로써, 한옥의 안팎이 입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재구성되었다.

아름지기 사옥(2004)은 북촌에서도 가장 전통에 충실하면서 우리시대에 맞게 지은 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충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효율성과 편리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부엌과 화장실에 현대식 설비를 갖추어 불편함을 개선했다.

한옥의 핵심적인 이미지를 규정하는 안채와 사랑채는

15) 김영수, auri 국가한옥센터 포럼-북촌 한옥의 공간적 변화와 한옥에서의 삶, 2012, p.38
 16) 황두진, 한옥단면의 진화와 도전, space, p.86

<표 8> 한옥 내부공간의 현대적 활용사례2

아름지기 사옥(2004)			
평면 배치적 특성	평면유형	‘ㄱ’자형(‘ㄷ’자형 안채 + ㅈ자형문간채)	평면도
	진입방식 및 출입구 위치	남북방향 주도로에 위치, 동쪽 진입	
	마당의 향	남향 열림	
	주요실 구성방법	안방, 대청, 전시실	
공간 구성	내부 공간 구성	매개공간	대문간, 마당
		시각적 개방성	전시실의 통유리로 인해 개방성 확보 -안방과 전시실 사이에 미닫이 분합문으로 공간 확장 가능 -마당-대청-뒷마당까지 시각적 개방성 확보
	가변적 공간구성	사무실에서 문을 열면 하나의 공간으로 확장	
의장	구조	기단	전통적 특성 유지
		벽체 및 창호	-대청 : 4짝 여닫이 띠살 -안방 : 머름+2짝 여닫이 띠살 -전시실 : 통유리
		지붕 및 처마	출처마에 막새기와 사용 팔작+우진각+맞배지붕
지속 가능한 보전	요소	1.도시공간조직	전체적인 경관을 통일하여 조화됨
		2.한옥기본구조	원형 유지
		3.마당 -실내화 여부	중정 형태 유지
현대적 활용	1. 한옥의 전통적 공간구성 유지 + 사무 공간 사무공간 외의 안채,사랑채는 전통창호를 적극 사용하면서도 사무실은 통유리로 마감하여 개방적으로 구성하였다. 2. 현대식 설비 : 입식 부엌과 현대식 화장실 설비 3. 수납공간의 활용 : 짜투리 공간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벽장 뒤편으로 배치하여 닫았을 때 전체적인 한옥의미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통성을 유지한 생활편의공간	사무실	벽장의 활용

전통의 방식을 따르도록 노력하였으며, 안채는 대청과 안방으로, 사랑채는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며 처마 밑으로는 부엌과 화장실을 내어 현대식 한옥을 만들었다. 비교적 새로운 자재가 많이 들어간 안채는 한옥의 전통적인 구법에 따르되 대청마루 앞뒤 창호에 한지 대신 유리로 마무리하여 시각적인 개방성과 현대인의 생활상 편의를 반영했다.

궁중음식연구원(2003)은 궁중음식 전수 교육기관으로서, 주거로 쓰던 집을 집무실과 다목적 실습실로 개·보수하였다. 길 쪽의 한옥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수하고, 안쪽은 둘레의 벽만 남기고 수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벼운 경량 목구조를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였다. 1층의 한옥 본체와 2층 별채를 통해서 공간의 성격을 구분하면서도 하나의 건물처럼 어우러지게 구성하였다. 또한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 방은 단란, 접객, 취침 등 모든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폴딩 도어를 사용하여 공간의 확장성을 꾀하였다.

<표 9> 한옥 내부공간의 현대적 활용사례3

궁중음식연구원(2003)			
평면 배치적 특성	평면유형	복합형(‘ㄷ’자형+‘ㄷ’자형) 두 필지를 합필	
	진입방식 및 출입구 위치	남북방향 도로에 위치, 서쪽진입	
	마당의 향	남쪽 열림	
	주요실 구성방법	본체(1층)+별채(2층) 주거, 사무실, 실습실	
공간 구성	내부 공간 구성	매개공간	대문간, 마당, 쪽마루
		시각적 개방성	기존 한옥형태 유지
		가변적 공간구성	별채의 실습실은 대청마루의 폴딩도어를 열면 앞마당이 오픈되어 넓게 사용가능
의장	구조	기단	전통적 특성 유지
		벽체 및 창호	남도리 소로수장, 아자살 창호, 회벽마감
		지붕 및 처마	겹처마 합각+모임+맞배지붕
지속 가능한 보전	요소	1.도시공간조직	전체적인 경관을 통일하여 조화됨
		2.한옥기본구조	원형유지(두필지합필)
		3.마당 -실내화 여부	중정 형태 유지
현대적 활용	1. 한식 목구조 + 서양식 경량목구조 (전통 목구조방식에 서양의 구축방법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활용) 2.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가변적 공간구성 : 대청마루의 폴딩도어를 열면 음악행사나 각종전시를 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으로 변신한다.		

다사헌(多士軒)은 기존의 목재 트러스로 덮어버려 실내화 되었던 마당과 사이공간을 막아두었던 창고나 방등을 걷어내었다. ‘비움과 소통’은 다사헌이 지니고 있는 개·보수의 주된 개념으로, 공간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순환하면서 채의 배치가 여유로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안채의 대청과 양쪽 건넌방들은 가능한 전통을 그대로 살리면서 부엌과 화장실 공간은 입식으로 편리성을 꾀하였고, 특정 공간의 기능을 정하지 않고 가변성 있는 하

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안채가 전통적으로 구성된 반면에 사랑채는 테이블을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입식공간으로 꾸몄다. 또한 사랑마당과 사랑채, 안마당, 안채의 대청까지 시각적으로 관통하는 개방성을 주어 단위모임이 있을 경우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10> 한옥 내부공간의 현대적 활용사례4

다사현(多士軒, 2010)				
평면 배치적 특성	평면유형	'ㄱ'자형 한옥(ㄴ자형 안채+ㄴ자형 문간채)		
	진입방식 및 출입구 위치	동서방향 주도로에 남쪽 진입		
	마당의 향	남쪽 열림		
	주요실 구성방법	안채, 사랑채, 문간채		
공간 구성	내부 공간 구성	매개공간	대문간, 마당, 대청마루	
		시각적 개방성	투명한 입면을 앞뒤로 구성해 소통 원활	
		가변적 공간구성	하나의 실로 공간 확장 가능	
지속 가능한 보전	요소	1.도시공간조직	전체적인 경관을 통일하여 조화됨	
		2.한옥기본구조	원형 유지	
		3.마당 -실내화 여부	중정 형태 유지	
현대적 활용	1.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가변적 공간구성 : 앞뒤로 공간을 개방할 수 있어 시각적 확장뿐만 아니라 공간적 확장까지 가능 2. 현대식 설비 : 입식 부엌과 현대식 화장실 설비			

무무현(無無軒)은 최대한 한옥의 원형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입식 화장실과 부엌 등 부분적으로만 현대식을 더한 형태의 한옥이다.

이 집의 소유주는 선조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전통의 아름다움과 우리나라 목가구의 가치를 높이 여기며 많은 이들에게 알리면서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하여 벽장을 개조하여 덧붙였으며, 사물함으로 쓰이거나 소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

<표 11> 한옥 내부공간의 현대적 활용사례5

무무현(無無軒, 2004)			
평면 배치적 특성	평면유형	'F'자형 배치	
	진입방식 및 출입구 위치	동서방향 주도로에 남쪽 진입	아이소(평면)
	마당의 향	남쪽 열림	
	주요실 구성방법	안채, 사랑채, 문간채, 대청마루	

공간 구성	내부 공간 구성	매개공간	대문간, 마당, 대청마루	
		시각적 개방성	문의 열고 닫힘에 따라 하나의 공간으로 소통	
		가변적 공간구성	큰방과 대청마루가 하나의 실로 공간 확장 가능	
지속 가능한 보전	요소	1.도시공간조직	전체적인 경관을 통일하여 조화됨	
		2.한옥기본구조	원형 유지	
		3.마당 -실내화 여부	중정 형태 유지	
현대적 활용	1. 내·외부 공간의 자연스러운 연결 : 안과 밖, 안과 안이 열고 닫힘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간으로 소통된다. 2. 현대식 설비 : 입식 부엌과 현대식 화장실 설비 3. 벽장요소 적극 활용 : 가전제품이나 소품들을 눈에 띄지 않도록 벽장 뒤로 가릴 수 있다.			
	입식 부엌 벽장의 활용 다락의 활용			

용되고 있다. 이러한 한옥의 개·보수로 인한 변화는 옛것의 연장과 지속가능한 삶의 점진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4.3. 소결

도시형한옥에서 나타나는 내부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한옥의 용도에 따라 공간사용방식에 변화가 있으며,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넓게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 가구식 구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 한옥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나 서양식 경량 목구조와 같이 현대식 건축 재료들을 적용하면서 구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현대의 난방방식의 발전에 따라 온돌과 마루 하부공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수직적 변화를 만들어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은 알 수 있다.

셋째, 도시형한옥의 열린 구조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한옥의 기능이 주거에서 상업, 복합문화, 업무 등의 기능으로 변화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도시형한옥은 본래의 형태를 변형하기보다는 기존의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면서 내적 변화를 통해 프로그램들의 공간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가변적 공간구성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한 나라의 정체성은 그 나라가 지닌 역사적 요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역사 문화유산의 보전은 문화재에 한정되어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소극적인 보전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근래 한옥이 지닌 역사성과 그 가치를 재인식하고 적극적인 보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한옥만이 아닌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면적인 단위의 보전을 위한 가로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공간의 경우에는 외관의 형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보수가 가능하다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보전개념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소유자의 사용목적과 한옥의 가치인식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하지만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한옥의 고유한 형태가 많이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한옥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 무분별한 확장이나 증축이 아닌 한옥의 전통적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공간 기능을 수용하는 현대적 사용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활용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도시형한옥의 현대적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내공간의 구성은 안채, 대청마루, 사랑채 등의 공간적 의미가 사라지고 개실로 변함에 따라 실들의 관계는 필요에 따라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하나의 실로 통합하여 전시회나 행사 등으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한옥 공간에 대한 심리적인 친근감이 형성되며, 실제의 생활과 관련되는 대상임을 인식하게 하여 건축자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둘째,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형태와 구성은 한옥만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마감하여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한옥 고유의 구성미를 유지함으로써 교육적 체험의 장소, 또는 홈스테이 시설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¹⁷⁾

셋째, 역사경관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체가 되어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개개의 한옥이 지닌 가치보다는 집단적으로 조성된 한

옥의 경관과 도시조직의 가치를 높이 여겨 전체적으로 통일된 역사문화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대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면서도 외관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한옥에 거주자의 요구에 맞는 내부공간의 적절한 사용실태를 통하여 활용방안을 제시 하였으나,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참고문헌

1. 김도연, 북촌 비주거용 한옥의 역사적 장소성을 위한 보전 및 활용방향, 경희대 박사논문, 2008
2. 김윤성, 도시한옥의 리모델링 방안에 관한 연구 : 도시한옥의 원형 분석을 통하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8
3. 송인호, 도시형한옥의 유형 연구, 서울대 박사, 1990
4. 이소영·박소현, 도심 내 한옥밀집주거지역 도시형 한옥의 변화 특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0
5. 한국의 도시경관 - 우리 도시의 모습, 그 변천·이론·전망, 열화당, 2004
6. 황두진, 한옥단면의 진화와 도전, space
7. 권영상·조민선, 한옥마을 지원정책을 통한 역사문화가로경관 조성방안, AURI, 2011.3
8. 김영수, 국가한옥센터 포럼-북촌 한옥의 공간적 변화와 한옥에서의 삶, AURI, 2012
9. 김용미, 현대건축과 전통건축의 결합 가능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53호, 2009.9
10. 류춘화·박진자, 현대주택 리모델링의 전통성 표현을 위한 한옥 리모델링 사례분석 연구, 건축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통권 제24호, 2004
- 방재성·양병이, 도시경관계획을 위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 제37권 제2호 통권 133호, 2009.6
11. 손승광, 현대한옥 단위세대와 집합주거 모델개발 기초연구, 한국주거학회 통권 제22호, 2011.4
12. 최선주, 우리나라 역사지구 보존의 과제 : 문화재보호정책상 「면의 보존」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1996
13. 최선훈·박소현, 서울 서촌(西村) 문화지구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4
14. 허혜림·임종엽, 현대 거주공간으로서 도시한옥의 가능성 제안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제46호, 2004.10

[논문접수 : 2012. 07. 31]

[1차 심사 : 2012. 08. 23]

[2차 심사 : 2012. 09. 04]

[게재확정 : 2012. 10. 12]

17) 미국노르웨이 통계 : 관광객들이 문화유산을 방문할 때 소비는 문화유산 자체(총 소비의 6~10%)가 아니라 문화유산이 위치한 도시(지역)의 호텔, 상점 등에서 대부분 소비된다.